

형제애를 넘어서는 화해의 길

성황을 이룬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



공화국의 각지에서 따라 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 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명제품, 명상품의 품종을 확대해나가고있는 속에 얼마전 제13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가 전례없는 규모로 특색있게 진행되었다.

중앙과 지방의 500여개 공장, 기업소들에서 출품한 2 550여종에 133만여점의 다양한 제품들이 출품된 이번 전시회는 증정되는 시련과 역경을 박차고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공화국의 경제발전전모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출품한 송도원종합식품공장의 전시대에서도, 산골특유의 향취가 스며들어있는 차제들과 산나물가공품들을 내놓은 장차산종합식품공장의 전시대에서도 이런 물음은 계속되었다.

공화국은 온 사회가 덕과 정으로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이다.

아파하는 사람은 뜨겁게 위해주고 불편해하는 사람은 부축해주며 힘을 아끼는 사람과 사심없이 도와주는 사람과 정이야말로 공화국특유의 국풍, 사회적풍조이다. 이제 언급하게 될 이야기가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락랑구역 통일거리1동에 살고있는 김득옥로인은 예전에 한가지 고민거리가 있었다. 언젠가 김득옥로인은 길을 가다가 뜻밖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바로 그때 지나가던 한 운전사가 그를 자기 차에 태워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귀한 약까지 마련해주었다.

그후 의식을 회복하고 감동깊은 사연을 전해들은 로인은 눈물이 젖어 들었다. 그럴수록 고마운 사람을 꼭 찾아 인사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운전사가 자기의 이름도 대주지 않고 조용히 떠나간것으로 하여 그의 행처를 찾기가 몹시 힘들었다고 한다. 병원에서 퇴원한 김득옥로인은 단념하지 않고 그 운전사를 찾아 여기저기 수소문하였다.

고마운 사람을 찾아 하루 또 하루... 하지만 그를 찾을수 없었던 로인은 최후로 마음을

《누구나 그렇게 하였을것입니다》

자기 단위의 열거가 살아나기

전시회가 시작된 첫날부터 평양제1백화점은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전시회장을 찾은 우리는 어느 전시대부터 둘러야 할지 망설이었다. 그만큼 눈길이 닿는 곳마다 모두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류달리라는 사람들로 흥성이어 전시대가 있었다. 다름 아닌 통약산비누공장전이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각종 샴푸와 린스, 세척제들에 대한 손님들의 수요가 높았다. 그 이유는 질이 좋았기 때문이다.

인민들의 기호와 특색, 취미에 맞게 만든 각종 화장품들이 출품된 평양화장품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전시대들에서도 사람들

《지방공업제품들이 훌륭니까?》

이번 전시회를 이체롭게 장식한것은 각 도들에서 출품한 지방특산물들이었다. 해나물을 가공하여 만든 산나물제품들이 있는가 하면 수산물가공품, 당과류와 같은 식료품들도 있었다.

건강에 좋은 량강도의 특산물인 들깨가공제품도 눈에 띄었다. 산골, 오미자, 벌꿀오미자, 익모초가루 등을 전시한 자강도천연건강제품생산사업소의 전시대도 사람들이 즐겨 찾았다.

전시회장에서 색깔과 무늬가 고운 수지제품들을 끌라잡고 어느 공장에서 만든 제품인가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다. 알고보니 강서구역사업관리소에서 출품한것이었다. 이곳 관리소에서는 100여종에 1만여개의 각종 수지제품들을 출품하였는데 대다수가 강서구역의 가내작업반원들이 생산한것이라고 한다.

왜 남의것을 넘겨다보겠는가

사람들로 붐비는 전시회장에서 한사람이 가방을 비롯한 제품들을 안고 호호한 마음으로 전시회장을 나서고 있었다. 우리는 그에게 어떤 제품들을 샀는가고 물었다.

문수봉화피복공장의 계절옷, 함흥편직공장의 남자내의, 평양대중도포가공공장의 털모자와 목도리 그리고 통일화장품생산소의 향수, 갈림길보통공업제품생산소의 구두약...

이를 통해 국내산제품들이 사람들속에서 수요가 높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이어 평양자동차기공공장의 전시대에 둘러니 전기담가마, 전기다리미, 선풍기들도 있었다. 모두 공장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것이라고 한다.

경기장에서 만난 바드민턴 애호가들

얼마전 공화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평양시 년로자 및 애호가들의 바드민턴경기, 그 호가들의 바드민턴경기가 진행되었다. 년로자단체경기, 애호가경기, 년로자애호가혼합경기로 진행된 경기들에서 선수들은 대중체육활동을 통하여 평시에 연마한 바드민턴기술을 잘 보여 주었다.



동대원구역 동진2동에 살고있는 김학실(74살) 할머니에게는 평양시 년로자 및 애호가들의 바드민턴경기에서 받은 5개의 메달들이 있다.

그는 대중체육활동의 나날에 연마한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2017년부터 해마다 평양시 년로자 및 애호가들의 바드민턴경기에서 1등을 비롯하여 5차례나 순위에 입선하였다. 이번 년로자애호가혼합경기에서 상대편 선수를 고 압시켜서 뒤서거나 하며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리는 모습은 응원자들과 관람자들의 눈에 띄게 하였다.



이번 경기에서 특별히 사람들의 주목을 끈 선수가 있었다. 그가 바로 올해 77살인 정규진선수이다. 30여년전 저주로운 남조

대중체육활동의 나날에

년로자 및 애호가들의 바드민턴경기, 그것은 고마운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회화와 평안에 넘쳐 보람찬 삶을 마음껏 누려가는 공화국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여준 또 하나의 축도였다. 경기장에서 우리는 인상깊은 경기장면을 펼쳐보 인 바드민턴애호가들을 만났다.

이 부름은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익히는 말이다. 《엄마》라 부르며 따르고 안기는 자식을 품에 안을 때마다 가슴에 부드러운 행복, 이 행복을 《독점》한 것은 어머니들의 행운이라 할가. 3살집이 내 딸에는 잠결에 도엄마에 대한 꿈을 꾸는 지 보통보통한 손을 나의 목에 얹으며 《엄마》라고 중얼거린다. 자식들을 낳아키우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듣게 되는 《엄마》라는 부름, 이 《엄마》라는 부름이 안고있는 의미를 내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다.

말했다. 《내가 남조선에 있었던 때라면 일흔일곱살은 고사하고 예순살도 넘기지 못했을것입니다. 또 오늘처럼 기쁨과 평안에 넘쳐 바드민턴경기에 참가하지도 못했을것입니다. 공화국이야말로 새 삶을 안겨주고 황혼기에도 청춘에 살게 해주는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본사기자 박해방

《엄마》라는 부름을 두고

도 채 감지 못하고 무뎠히 버려졌을 몇몇이들. 그들에게 엄마란 무엇이란 말인가? 안타깝게, 불쌍하게 고사리손으로 용서를 빌 때 인자와 자비란 표출만큼도 없었고 《엄마》란 인간들이 그들에게 과연 사람으로 보였겠는가.

너무도 어린 나이에 낳아준 엄마들때문에 《엄마》라는 부름을 영영 상실하고 숨겨진 꽃망울들이 하나같이 이 어찌 무뎠었을까 《살려주세요!》라는 비통한 절규가 나의 가슴을 《엄마》라는 가장 신성한 이름을 모독하고 더럽힌 살인자들에 대한 분노와 저주로 높뛰게 했다.

하더라도 이 엄마 아닌 엄마들이 세상에 날 때부터 살인마, 인간중독물들이었는가. 사회를 지배하는 썩어빠진 황금민중주의와 반인민적인 악정이 그들로 하여금 살과 피를 갈라 낳은 친자식마저 부모와 혐오의 대상으로 되어 꺼리낌없이 죽이고 매장해버린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었다.

사람들사이의 정과 화목은 더 말할것도 없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천시하고 살인하는 매를매덕이 만연하는 사회가 바로 인간생지옥 남조선이다. 가장 아름답고 신성하게 불리워야 할 《엄마》라는 부름이 살인마라는 소름끼치는 부름과 나란히 함께 하는 이런 썩어빠진 사회에서 사랑과 정은 한낱 거저에 불과하다. 잠시 지켜보자. 공화국에 건국 이래 대동단이라고 할수 있는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걱정했는 바로 사랑하는 자식들이었다. 공장, 기업소, 학교와 유치원, 모든 주민세대들이 문을

는 한없이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받아안으며 찬란한 미래의 주인공들로 자라나는 자식들의 밝고밝은 모습을 바라보는 이쁨할수 없는 행복감,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모든 어머니들이 받아안는 더없는 행복감과 긍지일것이다.

《엄마!》 이 땅의 천만자식들의 운명과 미래도 다 맡아안아 따듯이 보살펴주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어 아이들의 입에서 레사롭게 울려나오던 이 부름도 후대들에 대한 진정한 모성애의 대명사로 되게 되고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이 참다운 엄마로 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엄마》라는 그지없이 평범한 이 부름말에도 사랑과 정, 대화원, 참다운 인간애, 사랑과 정이란 열광만으로도 찾아볼수 없는 인간생지옥의 극명한 대조가 비껴 있다.

이런간중요, 악으로 매달려진 남조선사회에서 불안과 공포, 범죄의 대명사로 《엄마》라는 부름이 불리운다는 것을 내 딸은 아직 알지 못하리라. 나는 생각한다. 엄마가 엄마답게 사는 우리 공화국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이라고. 김혜정



30여년전 저주로운 남조